분별 망상심 여의세

대한불교금강종
종정 송천 스님



知幻即離 不作方便
離幻即覺 亦無漸次

위의 뜻은 "모든 것이 환(幻, 꼭두각시)인 줄 깨닫기만 하면, 곧 (헛된 생각을) 여의면 더 방편을 지을 것이 없고, 환(幻)을 여의면 곧 깨친 것이라 더 닦아갈 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우리들 곁을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몸 한 맘이 본래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이 하나 또한 없음을 안다면, 분별 망상심(分別 妄想心)을 여의게 되어 마침내 성불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하나의 마음으로 정진 수행하여 밝은 나라, 불국정토를 이룹시다.

분별떠나 행복 밝힙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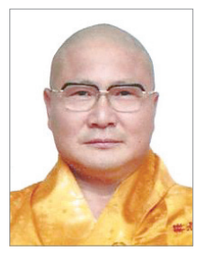
대한불교해인종
종정 만허 스님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부대중과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갈등과 불안이 깊어졌으나, 해답은 늘 마음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탐욕을 덜고 분별을 놓으면 삶은 곧바로 평온해집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비난보다 연민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계율을 지키고 정진을 이어 갈 때, 한 사람의 수행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새해에는 스스로를 살피며 모두가 함께 이익 되는 길로 나아갑시다. 작은 선행을 미루지 말고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여 자비의 인연을 넓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쓰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한마음의 새 아침 밝았네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스님



불기 2570년 새해를 맞아 한마음조계종 사부대중 여러분께 법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은 밖에서 새로움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서 비롯됩니다. 한마음은 본래부터 온전하며, 분별과 집착이 그 빛을 가릴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비추어 보면, 이미 부처의 자리가 갖추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수행이 곧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한마음을 담아 실천합시다. 나의 평안이 이웃의 평안으로 이어지고, 작은 자비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정법 등불로 밝히는 세상 열자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종정 권한대행 혜운 스님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적토마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기운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법(法)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자 마음의 길입니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인 정법에 의지하여 흔들림 없는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달아, 소외된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곧 참된 수행이자 불국토를 이루는 길입니다.

지혜의 불을 밝혀 어둠을 걷어내고, 상생과 평화의 꽃을 활짝 피웁시다.

불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탐심을 버리자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



諸志行千里 貪心滅諦快
滅度生死苦 當來甘露味
제중생들이여 뜻이 있어
천리를 가고자 하려거든 탐심을 버리라
일신이 가볍고 즐거우리니
자연히 생사고도 멸할것이요
머지않아 감로의 단맛을 보리라

세상은 어지럽고 불안정하리니 저마다 탐욕을 버리고 분수를 지켜 조용히 처신해야 민심 또한 평온해질 것이니 기득세력일수록 망동하지 말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마음 밝히는 새해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사부대중과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세상은 늘 빠르게 변하고 번뇌는 그칠 줄 모르지만, 진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고, 오늘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깃들어 있습니다.

새해에는 분별을 줄이고 자비를 넓히며, 나와 남을 둘로 나누지 않는 보살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합시다.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자리가 곧 도량이며, 한 걸음 실천하면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한 생각 놓는 계기삼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새해가 왔다고 시간은 새로워지지 않지만, 한 생각을 놓으면 그 자리가 곧 새해입니다. 사부대중과 모든 인연 있는 중생에게 이 한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발원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더 가지려 하고, 어디로 더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더함이 아니라 덜어냄에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생각 하나,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 하나가 곧 괴로움의 뿌리임을 살피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번뇌를 없애려 애쓰지 말고, 번뇌가 일어나는 자리를 바로 보십시오. 고요를 찾으려 하지 말고, 소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살피십시오.

언행을 살피고 삼가라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부나비 촛불에 뛰어든다고 촛불을 끄랴. 낙화(落花)) 진다고 바람을 탓하랴. 가는 세월 오는 백발 막을수 없는 인과(因果)의 수레 바퀴 무상(無常)한 권력의 부침 (浮沈) 또한 다름이 없것마는 어리석은 중생들 모진 업보에 가려서 삼독(三毒)에 취해 헐떡인다. 오호라 을씨년의 난장을 딛고 적토마가 갈기를 세워 힘차게 달리는 도다. 훗날을 기약코저 한다면 지금바로 지금 그대의 언(言)과 행(行)을 살피고 삼가하라 다언삭궁(多言數窮)이요 항용유회 (亢龍有悔)로다.

그릇된 집착과 탐욕은 다내려놓고 자비를 베풀면서 복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비로 피어나는 세상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역동적인 붉은 말의 기운으로 만물이 생동하고, 국운이 융창하며 국민 모두가 평안하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종단이 지향하는 '생활 불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산속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과 이웃의 따뜻한 미소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자비심이야말로 세상을 맑게 닦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마음의 밭을 청정히 갈아야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지혜의 등불을 높이 들어 어둠을 물리치고, 갈등을 넘어 상생의 꽃을 피워냅시다.

계율청정의 새해 만드세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새해를 맞아 사부대중과 모든 불자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법은 말로 빛나지 않고, 삶으로 증명됩니다. 그 삶의 기준이 곧 계율입니다. 계율은 얽어매는 규범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길이 흐트러지지 않듯, 계율이 바로 설 때 수행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욕심을 절제하고, 언행을 삼가며, 공적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시다. 한 계목을 지키는 정성이 종단을 바로 세우고, 불법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율을 근본으로 삼아 수행과 포교가 함께 꽃피는 한 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불은 태워 마음을 밝힙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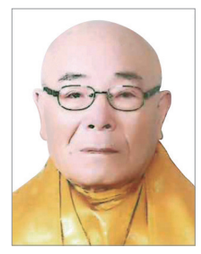
대승불교삼보종
종정대행 법장 스님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은 태우는 힘이 아니라 밝히는 힘입니다. 세상은 빠르고 불안하지만, 길은 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세상도 어두워집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멈추고, 한 번 살피고, 한 번 내려놓는 것이 이미 불법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어도 자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오년에는 더 많이 주장하기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 이 사회의 온도를 바꿉니다. 새해, 모든 이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서 지혜의 불을 밝히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온누리에

금강조계종
종정 법두 수암 스님



병오년 새해에는 모든국민이 화합하여 나라에는 안정과 번영을 펴야 하고 민족의 번영만이 잘살았가는 길 임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역사와 민족을 우롱하고 부인하는 어두운망 복념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고루내리시어 그들에게 자유와 희망과 생의 용기를 주시옵기를 기원합니다.

자비 화합 평등 자주의 부처님 정신이 청정무구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처방이며 자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류의 찬란 빛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새해에는 허망된 욕심과 아집을 버리시고 서로 화합하여 복덕을 쌓아 복되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사)대한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청암도선 대종사

원로회의
의장 보명
(의원 일동)

총무원
원장 관효
(총무원임원 일동)

중앙종의회
의장 서안
(의원 일동)

전국교구종무원장

부산교구종무원장 용암
충북교구종무원장 지성
경주교구종무원장 혜문
경북교구종무원장 해월
전라교구종무원장 정각
김창교구종무원장 송열
강원교구종무원장 승일
마산교구종무원장 현진
제주교구종무원장 관행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92번길 17(성남동) 전화 02)762-2678 팩스 042)627-5044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